

더 큰 포교위한 '외도'



이종만 콘서트 / 4월 15일 문화일보홀

4년만의 공연 이종만식 노래 선사
불교·포크음악은 내 삶의 원동력
5월 3일~5일 찬불가 콘서트 예정

'불교음악'을 찾아 떠났던 긴 여행에서 이종만(49·사진)이 돌아왔다. 포크음악을 한가득 싣고서, 그 음악 보따리가 4월 15일 오후 3시와 5시 문화일보홀에서 펼쳐진다. 제목은 '음악이 생의 전부'이다. 그는 80년대 초부터 그룹 '참새를 태운 짐수레'를 결성해 포크음악계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며 주목받았다. 또한 96년부터는 '좋은 벗 풍경소리'를 만들어 13년간 어린이 찬불가 포교에 매진해오고 있다. 본업이 바뀐 셈이다. 그런 그가 왜 이번에 포크 콘서트를 열게 됐을까?

"장롱속에 꼭꼭 숨겨뒀던 내 것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인연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는 그가 지난 10여년동안 열정을 바쳤던 찬불가는 레퍼토리에 없다. "오랫만에 서는 포크 무대라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라며 가벼운 흥분을 내보인 이 남자는 2시간의 인터뷰 내내 사뭇진지했다. 3월 23일 인사동 찻집에서 만난 그는 점점 포크가수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 한 잔...정체성
"찬불가는 내면의 평화를 주지만, 포크음악은 삶의 희망을 주는 것 같다. 찬불동요음반은 23집까지 만들었지만 포크음반은 2002년 4집 '종로아저씨'가 마지막이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찬불가 포교에 온 열정을 바쳐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만을 생각하며 일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작아진 느낌이다. 이제 잠시 더 큰 찬불

가포교를 위해 잠시 휴식을 동반한 외도를 하고 싶었다. 재충전을 위해서..."

▲차 두 잔...무대
"이번 공연은 4년만에 처음 갖는 것이다. 2000년 들어 두 번째 콘서트니 정말 오래간만이다. 총 2부로 나눠 1시간 30분 정도 노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대표곡인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살아있는 기어' '어느 보조웨이터의 이야기' '장독뱅이' '자유'의 바람' 등 그동안 발표했던 음반 수록곡을 부른다. 2부는 재미있겠다. '라구요' '물줄기' '커피한잔' '빛속의 여인' 등 80~90년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이종만식으로 선사할 것이다. 기타외에 피아노, 드럼, 베이스, 건반 등을 사용해 공연장이 아닌 마치 내 방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을 주고 싶다. 아직도 대중음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차 세 잔...음악
"불교음악과 포크음악 모두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80년대 밤무대에서 노래하며 비교적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항상 마음속이 허전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일상, 슬취한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상처받는 자존심 등. 항상 이젠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중 90년대 초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하며 불교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는 내 업이 되버렸다. 어떤 장르의 음악이 든지 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을 믿고 산다."

▲차 네 잔... 포크가수 이종만
"중고시절부터 기타가 좋았다. 용돈을 모아 기타를 샀을때 모든 것을 다 얻은 느낌이었다. 정식으로 활동한 것은 1979년 그룹 '참새를 태운 짐수레'를 결성하면서부터다. 이후 86년에 첫 음반인 '이종만과 자유인'을, 89년 2집 '신사와 횡바지', 92년 3집 '나의 선택', 2002년 4집 '종로아저씨'를 냈다."

▲마지막 잔...그래도 '본업'은
역시 본업은 어린이 찬불가 포교다. 5월 3~5일까지 찬불가 콘서트를 연다. 계절별로 공연을 가질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5집 음반 기획도 고려중이다. 이번 공연처럼 본업을 잠시 휴업하고 돌아와 포크 무대로 이따금씩 휴가를 오겠다. 포크와 락은 내 정서적 삶의 원천이자 휴식처다. 일 할때나 휴가 때나 음악을 놓지 못하는 걸 보니 역시 음악은 내 삶의 전부인 것 같다. 공연문의 02)723-9836 글=김주일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단체 창단 및 찬불가 책 간행 활발

1970년대 - 1980년 전편

1970년대는 불교음악계의 산하단체가 창단되어 행동으로 포교의 선봉에서 활동이 시작되고 찬불가 책이 이곳저곳에서 간행되는 시절이다. 운문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972년 연화어린이합창단을 설립했다. 1979년 5월에는 불교동요집 <행복의 문>을 출간했다. 1970년에 찬불가 선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971년 불교연합회 주최로 찬불가를 공모했다. 최영철 선생이 작곡한 '삼귀의'와 '사홍계' 등이 당선되었다. 요즘 불자들이 법회 의식 등에서 부르는 노래다.

1972년 연화어린이합창단 설립

반영규·서창업 선생 활동 본격화

서창업 선생과 운문 스님의 찬불가에 대한 열정과 당시의 정황을 엿보도록 하자. 우선 서창업 선생님이 1976년 출간한 <찬불가>의 후기 일부를 보자. "교리가 행동의 좌표 설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시집이다. 운문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972년 연화어린이합창단을 설립했다. 1979년 5월에는 불교동요집 <행복의 문>을 출간했다. 1970년에 찬불가 선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971년 불교연합회 주최로 찬불가를 공모했다. 최영철 선생이 작곡한 '삼귀의'와 '사홍계' 등이 당선되었다. 요즘 불자들이 법회 의식 등에서 부르는 노래다."

1979년 운문 스님의 불교 동요집 <행복의 문>의 머리말을 살펴보자. "과거의 우리에게서 시작됐다. 1973년 삼보법회합창단 창단, 1974년 6월 '불교음악연구회' 설립, 1976년 4월 <서창업 찬불가>출판 등 활동이 돋보였다. 반영규씨는 1972년 서창업 선생을 만나시면서 본격적인 불교음악을 시작했다. 1973년 문서포교 '자비의 소리'에서 불교노래 포교를 시작, 1975년 불교청소년 지도자협의회 구성 후 청소년 음악법회인 '꽃타의 메아리' 창단, 1978년 육군본부 중앙방담 베나레스학생회 의 마하어린이합창단 주최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음악회 개최, 1979년 동국대 강당에서 찬불가 경연대회 등 많은 일들이 불교음악계에 경종을 울렸다. 이 시대에 출간된 찬불가집을 통해

별파라는 훌륭한 노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서 오늘날의 불교 노래가 꼭 있어야 할지도 불확하고, 지금껏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특히 요즘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그것을 역설하는 선각적 불교인이 부쩍 늘어났다. 이 찬불가집이 이 시점에서 태어난 것이 실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찬불가 100곡 중에도, 운문 스님을 비롯한 몇몇 선각자에 의해 찬불가나 합창단 주최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음악회 개최, 1979년 동국대 강당에서 찬불가 경연대회 등 많은 일들이 불교음악계에 경종을 울렸다. 이 시대에 출간된 찬불가집을 통해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⑦

그림: 이상배 화백

오대산 지장암

장인성 시인

입춘 지날지도 한참인데
월정사 가는 길은 눈발에 막혀
천나무 가지 꺾어 지팡이 삼아
더듬더듬 걸어서 지장암에 들었더니
저우네 얼부러 불그레한 비구니의
가느다란 눈썹과 뺨안뺨과
눈물나게 눈물나게 서러우기로
깊은 산엔 봄바람 더디오니 보구나.

지장암(地藏庵)-오대산의 다섯 봉우리중 남쪽에 자리한 비구니암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방을 열었던 유서깊은 도량이다.

흙으로 빛은 생명의 소리

불교미술가 김영수씨 소조 불상展

'흙에도 생명이 있다'

소조불상 작가로 4월 8일까지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첫 전시를 열고 있는 김영수씨(36)는 그의 오브제인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인도의 수행자, 고행하는 스님, 부처님 등 그의 손을 거치면 하나의 생명체가 완성됐다. 이번 전시에는 몇해동안 꼭꼭 그의 작업실에 숨겨뒀던 그의 생명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김씨의 작품인 '아미타불', '인디아 두상', '도천수신 두상' 등을 접하면 마치 살아있는 인물을 접하는 것 같다. 그

만남 생동감이 넘친다. 그 흙은 달마도와 같은 붉은 선에서 온다. 이번 전시 작품중 하이 라이트는 '3천배 올리는 공상'(사진)이다. 보는 순간 탄성이 나올 정도로 작업하다. 마치 중국 서인의 병마용을 보는 것 같다. 그의 작업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하나씩 가죽 단위로 만들어 한 것이라고 한다. 법륜사 불일미술관장 보경 스님은 "버리고 버리고 비우는 불교적 신심을 담아 3000개의 공상이 일체로 완성하는 장면"이라고 평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절 집안의 공상들을 생동감 넘치는 흙조각을 통해 음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2)723-1002 김주일 기자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강승규, 이하 불교사진연합회)는 4월 20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불자들의 신행모습, 사찰 내 사부대중의 모습,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습, 문화재 등 불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가로 2500픽셀 이상의 jpg이미지를 홈페이지(www.buddha-photo.org)에 온라인 접수시키면 된다.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 이상 구매시 서양보이차에서 차사돼지 선물로 드립니다. 200개 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담석은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양인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원리분석 과정분석장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공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온남 이관에서 만든 차입니다.

동홍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동홍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홍보이산차는 전년 17년의 야생교육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입니다

동홍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홍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홍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홍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주)충다원